

군산시,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방식 변경

이달부터 신용카드 매출 제외 현금영수증만 인정 을 군산사랑상품권 3000억원 발행...활성화 박차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주지 소비 인센티브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금 지원을 변경해 시행한다. 시는 지금까지 거주지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사용할 시 5000원, 10만원 이상 1만원, 20만원 이상 2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만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의 목적과 다르게 인센티브 신청 시 군산사랑상품권이나 현금영수증 보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방식은 기존과 같이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민이 1개월 동안 사용한 현금과 군산사랑상품권 현금영수증(5만원, 10만원, 20만원)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군산사랑상품권(5000원, 1만원, 2만원)으로 현금 받는다.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와 가맹 음식점 1곳을 포함한 2개소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 월 또는 익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위임신청은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만 가능하며, 신청서(도장날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이 현금받은 상품권을 다시 사용할 때 관내 골목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권 구입 10% 할인율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방침이며, 군산사랑상품권 율하는 3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현재까지 1000억원을 발행해 2개월 만에 600억원의 판매를 보이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영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시작

남원시는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주고받는 이름'으로 부모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신규 노인돌봄기부서비스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2명이 독거노인 1860명의 집을 월 2회 이상 방문해 스마트폰 안부영상을 제작한 뒤 SNS를 통해 자녀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곁에서 영상통화를 도와주는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녀와 소통을 돕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홀몸어르신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르신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대한민국 대표 주얼리 도시 익산 LK 주얼리(주), 금정공예품(유) 투자협약체결 영 2019. 2. 26.(화) 전라북도 익산시 LK 주얼리(주) 금정공예품(유) 지난 26일 익산으로 유턴하기로 한 LK 주얼리와 금정공예품 관계자들이 전북도,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중국 이전 주얼리업체 2곳 익산 산단 '유턴'

전북도·익산시와 '패션단지 임대공장 입주' 투자협약 체결 가 만들어진다. 김영남 LK 주얼리 대표는 "마·중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 제조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되돌아오기로 했다"며 "유턴기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kwangju.co.kr

고창군 '내고장 문화 지킴이' 15일까지 군민대상 신청 접수

고창군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가꾸는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알리는 사업이다. 지킴이들은 마당쓸기, 배수로 낙엽제거, 잡초 제거 등과 같은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과 함께 SNS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문화유산관과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역사요, 인류문화의 자산이다"며 "조상들이 남겨 놓은 문화재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kwangju.co.kr



농촌 빈집 정비 주거취약계층 무상 임대 정읍시, 올해 '희망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정읍시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과 지역활동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방치돼 있는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저소득계층을 비롯해 청년과 귀농·귀촌자 등에게 주거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문화 활동가(예술작가)에게는 민화방과 공부방, 마을책방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억2000만원을 확보해 6동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보 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며, 완료 후 입주희망자에게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입주대상은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 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마을(문화)활동가 등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주민숙원사업 638건 102억원 투입

순창군이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2억여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28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순창읍 시기마을 농로보수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38건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고 일제히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진입로정비,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마을내 하수구정비, 세전정비,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보수사업이다. 공사는 대부분이 2~3개월로 상반기 내 완공될 것으로 보여 군의 신속집행 실적도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농민기를 앞두고 농업환경 정비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영농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순창=정향근 기자 jyg@kwangju.co.kr

전북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품목 1위 '침대' 990건

지난해 전북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침대로 집계됐다. 28일 전북도가 밝힌 '2018년 전라북도 소비자 상담 맞춤형 정보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만519건으로 전년도의 2만677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피해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침대로 990건이었으며 이어 이불전화 서비스 628건, 스마트폰 478건, 상호서비스 402건이었다. 침대는 전년도 81건에서 10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지난해 침대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여파로 분석됐다. 전년도에는 스마트폰, 이불전화서비스, 중고자동차, 중고·매매, 초고속인터넷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

